

광양시-시의회 '산단개발추진단' 마찰

시, 전남도 승인 거쳐 행정기구 개편안 마련 시의회 "기술부서 확대 반영 안해" 안건 보류

광양시가 인구 15만명을 앞두고 전남도 승인을 얻어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광양시의회가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과정이 전망이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남도로부터 4급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 설치에 대한 행정기구개편안을 승인받았다.

이어 시는 지난 7월 29일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한시기구 설치 의견을 전달했으나 광양시의회는 지난 1일 의원간 담화를 통해 오는 7일 제177회 임시

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번 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승인되면 오는 10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던 한시기구의 설치조례안이 자칫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례 6건, 규칙 19건 등에 대해 집행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기술부서를 늘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반영도가 낮아 안간상정을 보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광양시의 입장은 절대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택지개발, 포스코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인구유입 추세 등을 감안해 전남도가 승인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는 행정 규칙의 경우 조례 개정에 의해 반영 및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기구 설치가 주목적인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소지가 높아 광양시는 물려오는 기업들과 시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산단 조성, 택지조성, 기업지원 등 행정추진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민 B모(중동·48)씨는 "광양시는 산업도시로서 대외적인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산단 개발 관련부서가 절실히 상황에서 한시적 이지만 설치가 필요한 기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A 의원은 "전문가의 조직 진단도 받고 공직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듣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규칙에 대한 반영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대부분 수용치 않아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고위간부는 "한시기구 설치를 두고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데 규칙변경을 가지고 의회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상정 조차 않는 것은 월권행위다"면서 "순수 의회기능대로 안건 상정 후 유보, 부결, 승인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난대수종서 향료 추출 '향수' 만든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가 녹나무 등 난대수종에서 천연향료를 추출해 향수를 개발한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구 온난화로 난대자원 개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 난대수종의 천연향료를 이용해 부가가치가 큰 천연향료를 추출해 향장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는 녹나무 등 난대수종 외에도 봄에 피는 꽃과 기타 산림수종에서 향료를 추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 향료산업이 주로 초본류

(허브류)를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산림자원연구소가 추진 중인 향료 추출은 속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목본류(나무) 중심으로 향료자원을 탐색하고 추출하고 있다.

산림자원 연구소는 올 하반기에는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추출 향료를 이용해 난도를 상징하는 상쾌한 그린 계열의 향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학식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추출된 향료를 이용해 향수, 화장품, 방향제, 비누 등의 다양한 향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다"며 "지역민의 소득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영광 '굴비골 진상미' 미국시장 처녀 수출

영광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국시장에 첫 진출했다.

영광군은 "영광 '굴비골 진상미' 20t이 지난달 27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동부로 수출된데 이어 10월에도 20t이 같은 지역으로 수출된다"고 3일 밝혔다.

'굴비골 진상미'는 영광군 묘량면

운당단지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전량 산물벼로 매입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또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남쌀 베스트' 순위 4위에 선정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를 쌀수출 원년으로 삼아 세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며 "포장디자인 개발과 물류비 지원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해남군 예산운영 평가
우수군 선정 5억 받아**

해남군이 기획재정부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예산 운영을 평가한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돼 5억원의 시장금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해남군은 특성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고 건전 운영을 위해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예산 규모와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하는 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해 유동예산을 없애고 명량대첩제와 관련해서는 진도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힘쓰는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